

“출·퇴근길 버스가 사라졌어요”... 시민들 분통

제주도, 8월 1일부터 85개 노선·75대 감차 시행 일부 노선 대기시간 더 늘어나고 환승까지 해야 시행 일주일 앞 불구 최종 계획 미공지 혼란 가중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버스 감차 및 노선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수요를 이유로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를 감차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현장 검증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149개 노선 680대 중 오는 8월 1일부터 85개 노선 75대를 감차한다. 이는 지난 22일 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72개 노선 64대보다 늘어난 숫자이다.

도는 감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했던 1개 버스운수업체가 지난 24일 오후 등차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업체의 버스 11대를 추가 감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갑작스럽게 이뤄진 상황이라 아직

도민들에게 공지는 안 된 상태이며, 이날 오후 중으로 변경 노선과 함께 시간표 등을 버스정보시스템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시내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각종 불만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버스가 사라지며 출퇴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뜩이나 없는 버스가 더 줄어들게 생겼다는 것이다. 또 급행버스도 아닌 200번대 일반 간선버스 전 노선을 대상으로 무정차 정류소까지 생기며 민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평소 222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김모씨는 “하루아침에 출근을 못하게 생겼다. 어떻게 출퇴근 버스를 없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도청에 문의 전화를 하니 교래사거리에서 오전 7시2분 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집에서 교래사거리 정류장까지는 도보로 20여분이 소요된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유모씨는 “읍면지역이면 시내에 비해 수요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도 엄연히 도민들이 사는 곳이고 버스 이용객들이 있는데 수요를 이유로 버스노선을 변경하고 줄이는 건 말이 안되는 처사”라면서 “가뜩이나 집을 거처는 버스노선이 2개 밖에 없어 하나를 놓치면 최소 40분씩 기다리는 상황인데 여기서 1개 노선을 아예 추가도 없애버리면 어떡하나. 차를 사지 않고서는 당장 어딜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도청 인터넷 신문고에는 “한두 달 전부터 공지를 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갑작스럽게 통보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당장 출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급행버스가 있는데 200번대 간선버스 무정차

정류장은 무슨 말이나, 삼무공원 근처나 신광사거리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라병원까지 15~20분 걸어가라는 말이나”는 등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노선 개편은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운영을 거친 결과이며, 주민설명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운영은 2021년 11월~2023년 4월까지 이뤄졌으며, 설명회는 2022년 말~2023년 초까지 이뤄지는 등 현재 시점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는 진행했지만 아무래도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던 것 같다”며 “감차로 인해 출퇴근시간대 배차간격이 벌어지는 피해에 대해서는 맞춤형 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감차와 관련해서는 오늘(25일) 안으로 공지가 이뤄질 것이고, 맞춤형 버스 노선 및 시간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공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26일 금요일 음 6월 21일 (13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60%
70%	성산	70%
60%	고산	60%
80%	서귀포	7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7/33°C
모레	흐림 28/34°C

흐리고 비

제주도는 흐리고 비오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27°C. 낮 최고기온은 30-32°C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5:42	달뜨기 22:50
해질 19:39	달짐 10:47
물때 만조 01:57	간조 08:38
14:11	20:42

자외선지수 보통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제주도교육청, 학내망 고도화 사업 본격

통신속도 10Gbps로 개선... 올해부터 3개년 계획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제주교육당국의 학교 학내망 통신속도 고도화 사업이 시작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및 빠르게 진화하는 미래교육에 대비한 환경조성으로 디지털 교육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교직원 업무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2월까지 해당 학교에 대해 전체 네트워크 통신속도를 전국 최초 10Gbps의 속도가 가능한 케이블로 교체하고 네트워크

중장관리시스템을 구축 기존 각 학교에서 관리하던 네트워크를 교육청에서 통합관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및 빠르게 진화하는 미래교육에 대비한 환경조성으로 디지털 교육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교직원 업무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오른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가정 밖 청소년 보듬을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가정·학교·사회 복귀 지원

가출 등으로 인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일시청소년쉼터가 본격 운영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삼양동에 문을 연 제주도 일시청소년쉼터의 입소 정원은 남·여 청소년 10명이다. 청소년쉼터는 침실, 화장실, 단체 활동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도는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을 운영 법인으로 선정했고, 쉼터 운영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9일 설치 신고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일시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위기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의식주 제공, 의료서비스 지원·상담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폭포수로 더위 식히는 피서객들 연일 뽕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5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담수폭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폭포수를 맞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출 징기와 예방과 및 위기로부터 보

호반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시청소년쉼터는 9~24세의 가출, 거리 배회, 노숙 청소년을 대상

으로 24시간~최대 7일 이내 임시보호와 상담 및 생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백금기자 haru@ihalla.com

위촉 승진

CONGRATULATION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강경필 (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동연

**제주특별자치도
체전운영팀장**

강성원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강창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서기관,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주강씨제주도총회 회장 강순우 외 종친일동

진주강씨총정공파제주도종친회장 강동우

진주강씨제주도청년회장 강용희

진주강씨제주염통약파종친회장 강주민

진주강씨총정공파제주도청년회장 강영남

진주강씨정랑공파문중회장 강한진

진주강씨제주염통약파청년회장 강필철

진주강씨제주시총회장 강택중

진주강씨정랑공파청년회장 강형현